

남조선에서의 소득량극화현상의 특징과 원인에 대하여

정치경제학부 양현

량극화란 용어는 남조선에서 나타나고있는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널리 리용되어왔다. 계층별소득,수출과 내수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각부문에서 확대되고있는 격차를 량극화라는 용어로 설명해온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부문의 격차가 결국은 매계층들의 소득격차로 귀착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량극화현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량극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어야 할것이다. 남조선에서는 1997 년의 경제위기이후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빈곤층의 증가를 배경으로하여 소득량극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년간 심화되어온 소득량극화에 대한 연구를 참고로 하여 남조선에서 나타나고있는 소득량극화의 특징과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른곽을 제시하는데 있다.

1.소득량극화의 정의

소득양극화(income polarization)란 소득중간계층이 해체되어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¹을 의미한다. 즉 소득중간계층이 소득상위계층과 소득하위계층으로 분화되어 상호이질적인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것²을 말한다. 소득양극화는 직접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계층과 소득이 적은 계층사이에서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즉 소비(=의식주)의 양극화로 나타나게 된다. 소득양극화가 중간층의 해체와 양극단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개념인것만큼 중간층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양극화의 심화여부에 대한 분석이 달라지게 된다. 중간층을 규정하는 기준은 소득수준, 자산규모, 교육수준, 직업 등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OECD 기준 즉 중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소득양극화와 비슷한 개념에 소득불평등이란 개념이 있다. 그러나 양자는 소득분포의 서로 다른 측면을 파악하는 개념으로서 엄밀히 구별된다. 위에서 본바같이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이 해체되면서 그것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분화되는 현상, 즉 소득분포에 상호이질적인 계층이 형성되는 집락화(clustering)현상에 주목을 하는 개념인 반면에 소득불평등은 소득분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현상을 의미한다. 즉 소득양극화는 소득분포의 양극단이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지만 소득불평등은 소득

¹ 김수현 『소득양극화의 개념 및 양극화실태』 새사연 2010.11

² 소득양극화에 대한 경제학적접근의 선행연구자인 Wolfson 은 소득양극화를 《중간부분이 소멸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고 같은 선행연구자인 Esteban & Ray 는 《2 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형성되는 이질적 집중현상》이라고 정의함.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중간의 해체》에 대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소득양극화에 대하여 접근하고있음 (민승규 외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8)

분배의 격차 및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소득불평등과 소득량극화는 소득분포의 다른 측면을 파악하는 개념이기때문에 서로 측정방법이 다르고 지표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지니(gini)계수와 소득 5 분위·10 분위배를 등이며 소득량극화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W(Wolfson)지수,ER(Esteban & Ray)지수 등이 대표적³이다. 따라서 한사회의 소득분배구조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자면 소득불평등과 소득량극화의 양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남조선에서의 소득량극화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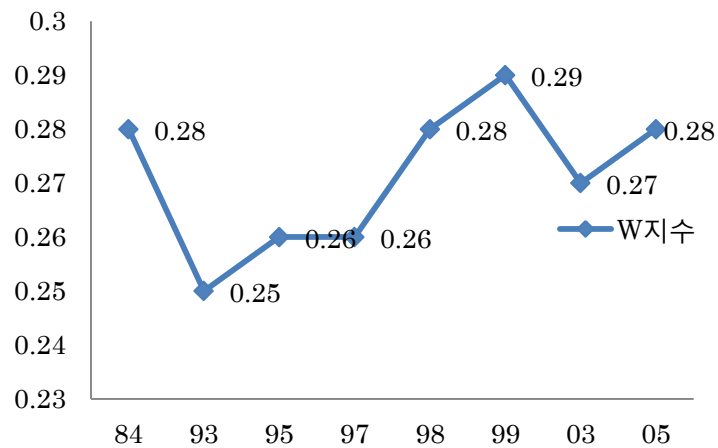
남조선의 소득량극화의 추이(도표 1-①,②참조)를 살펴보면 소득량극화를 나타내는 W 지수와 ER 지수가 1984 년부터 1997 년의 경제위기이전까지 10 여년간 감소⁴경향을 보였다가 경제위기이후 현저히 증가하고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W 지수는 1997 년과 대비하여 2005 년에는 7.69% 증가하였으며 ER 지수도 10.53% 증가하였는바 이는 경제위기가 소득량극화지수를 악화시키는 직접적계기가 되었다는것을 시

³ 소득량극화를 측정하는 지표에는 기타 EGR(Esteban,Gardin and Ray)지수,DER(Duclos, Esteban and Ray)지수 등이 있음.

⁴ 84 년~97 년사이에 소득량극화지수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인것은 《3 저경기》에 상징되는 호경기에 의하여 년평균 8.1%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것,87 년이후 고조된 노동운동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수준이 높아진것 등을 올릴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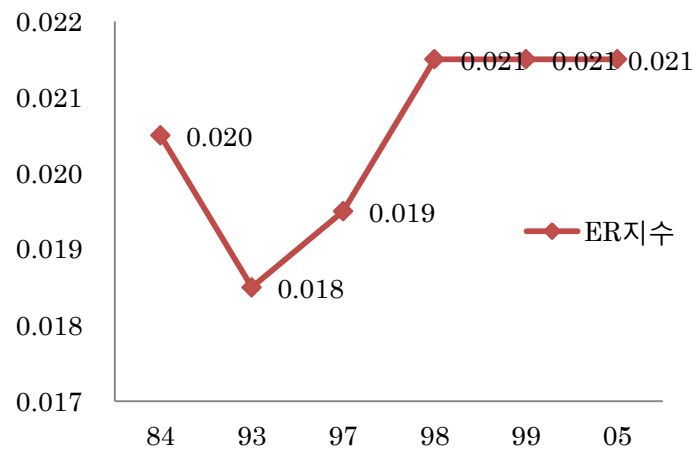
사하고있다. 또한 2006 년부터 2009 년까지의 소득량극화추이를 분석한 김수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6 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량극화가 심화되어있다.⁵

도표 1 -① 남조선의 소득량극화지수 추이(W 지수)



자료: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작성

도표 1 -② 남조선의 소득량극화지수 추이(ER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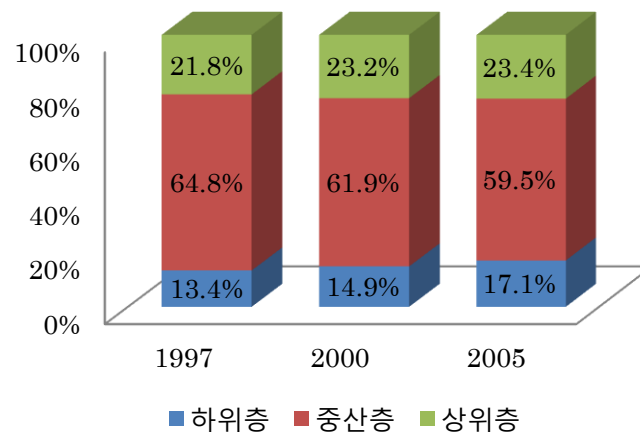


자료: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작성

⁵ 김수현은 FW(=W)지수,DER 지수,EGR 지수를 리용하여 동기간의 소득량극화추이를 분석함.(김수현 『소득양극화의 추이분석』 새사연 2010.12)

또한 소득계층별비중추이(도표 2 참조)를 살펴보면 감소된 중산층이 상위층보다도 하위층으로 더 많이 이동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1997 년과 대비하여 2005 년의 중산층비중은 5.3%P 감소한 반면 상위층과 하위층은 각각 1.7%P,3.7%P 증가하였다. 이는 중산층의 해체가 상위층의 형성보다도 빈곤층의 형성에 더 큰 작용을 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이와 같은 중산층의 감소와 빈곤층의 확대경향은 2006 년이후 현재까지 계속되어있다. ⁶

도표 2 소득계층별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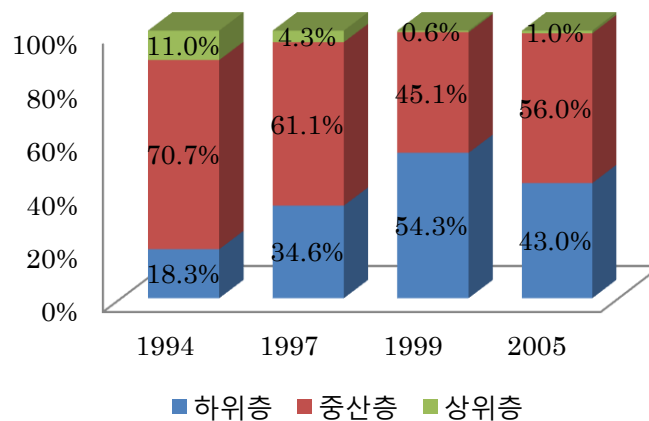
자료: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작성

남조선인민들의 귀속감을 보아도 자신들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이 감소되는 반면 하위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이 증대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⁶김수현에 연구에 의하면 2007 년 2 분기에는 상위층,중산층,하위층이 각각 25.57%,51.37%,23.06%였는데 2010 년2 분기에는 25.97%,50.50%,23.53%로 되어 중산층이 0.9%P 감소하였으며 그 반면에 상위층은 0.40%P,하위층은 0.47%P 증가하게 되어 중산층의 감소와 빈곤층의 확대라는 경향이 계속되었음을 논증함.(김수현 『소득양극화의 개념 및 양극화실태』 새사연 2010.11)

여론조사에 의하면 1994년에는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계층이 70%에 달하였는데
 경제위기이후인 1999년에는 45.1%로 감소하였다. 그 반면에 하위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은 동기간 18.3%부터 54.3%로 증대하였으며 상위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은 11.0%
 부터 0.6%로 감소하였다.

도표 3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계층귀속감의 변화



자료: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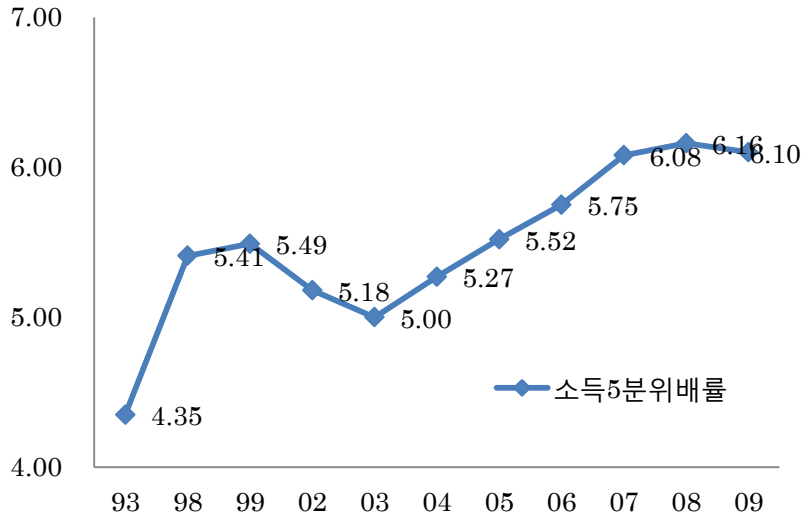
한편 남조선에서는 소득불평등과 하위층의 빈곤화도 심화되고있다. 소득불평등지
 수의 추이(도표 4-①,②참조)를 살펴보면 소득 5분위배율⁷은 경제제위기 직후인 98년
 에 5.41로 급증한후 5.00대를 유지하다가 08년에는 6.00대에 육박하고있다. 또한
 지니계수⁸도 역시 98년에 0.32로서 97년에 비해 0.04%상승하다가 09년까지 0.3

⁷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지수임. 총가구를 소득수준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누고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5분위의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

⁸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일반적으로 소득이 어느 만큼 균등하게 분배되어있는가를 분

대를 유지하고있다. 또한 하위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상대적빈곤률⁹(도표 5참조)을 보면 위기이후에 급격히 상승한후 09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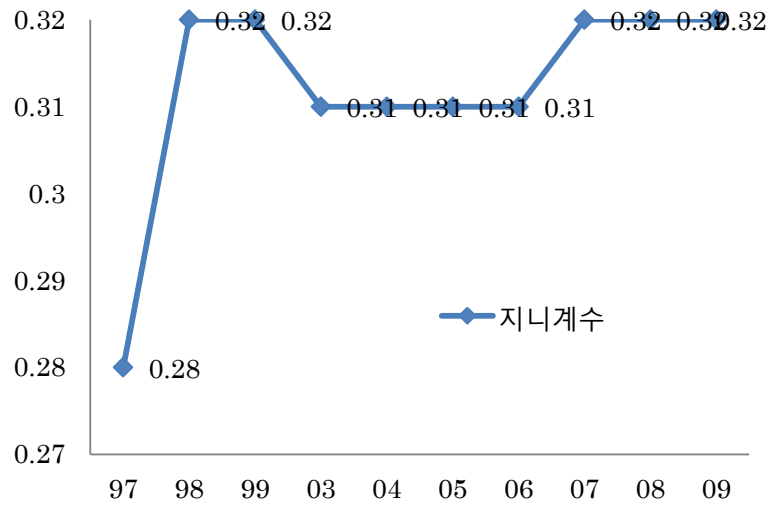
도표 4-① 소득불평등지수 추이(소득 5 분위배율)



자료: 통계청부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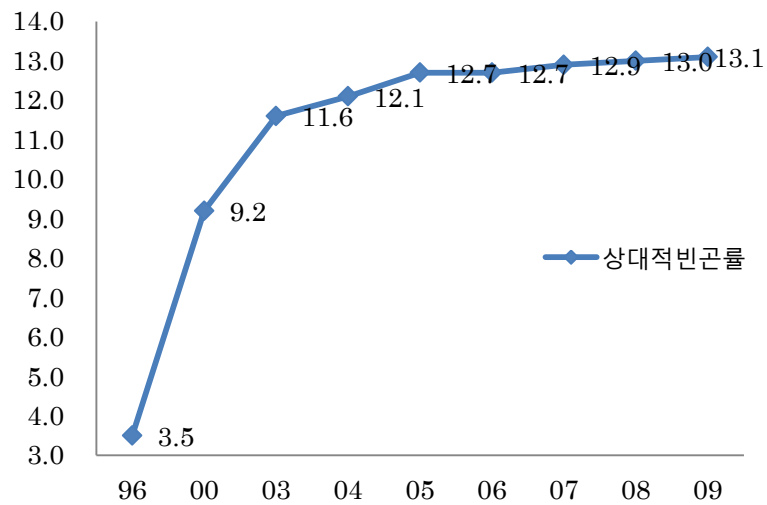
도표 4-② 소득불평등지수 추이(지니계수)

석하는데 쓰임.
⁹ 소득수준이 중간소득의 50%미만의 빈곤층이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 절대적빈곤률은 하루소득이 1 미\$에 못미치는 빈곤층이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 및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작성

도표 5 상대적빈곤률의 추이



자료: 통계청부터 작성

이상에서 본바 같이 남조선에서의 소득양극화현상은 1997 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심히 악화되었고 소득불평등(소득분배의 불균등과 소득격차)과 빈곤화를 동반하면서 심화되어있는것이 특징이다.

3. 남조선에서의 소득양극화의 원인

남조선에서의 소득양극화의 배경에는 영미식신자유주의정책의 추진 및 세계화의 촉진에 의하여 남조선을 둘러싼 대내외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사실이 깔려있다. 그러나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기회를 넘기도록 하되 여기서는 소득양극화의 직접적원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남조선에서의 소득양극화의 원인은 첫째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서 격차가 확대되어있는데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사이, 대기업과 기타기업사이의 임금격차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IMF 관리하에서 《로동시장의 유연화》란 미명하에 로동시장이 《개편》된 후 현저히 증가하였는바 그 수는 2010년 8월 현재 568만 5천명, 총취업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3%¹⁰에 달한다. (표 1 참조) 비정규직근로자들의 2003년 이후 월평균임금추이를 보면 정규직근로자임금의 50~60%에 지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해오고있으며 2010년 8월 현재 125만 8천원으로서 정규직근로자의 229만 4천원의 54.8%에 수준이다. (표 2 참조)

표 1 남조선의 비정규직근로자 규모 추이 (단위:천명)

¹⁰ 김수현은 비정규직비중을 49.5%로 추정함. (김수현 『소득양극화의 개념 및 양극화실태』 새사연 2010.11)

항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임금근로자(A)	14,148	14,584	14,968	15,351	15,882	16,104	16,479	17,048
정규직	9,542	9,190	9,486	9,894	10,180	10,658	10,725	11,362
비정규직(B)	4,606	5,394	5,482	5,456	5,703	5,445	5,754	5,685
비중(B/A)	32.6%	37.0%	36.6%	35.5%	35.9%	33.8%	34.9%	33.3%

자료: 통계청부터 작성

표 2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추이 (단위: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정규직(A)	195.8	201.8	184.6	190.8	200.8	212.7	220.1	229.4
비정규직(B)	95.2	98.1	115.6	119.8	127.6	129.6	120.2	125.8
비중(B/A)	48.6%	48.6%	62.6%	62.8%	63.5%	60.9%	54.6%	54.8%

자료: 통계청부터 작성

한편 2010 년 3 월현재 종업원 300 명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11.6%인데 비해 30 명미만의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58.24%에 달한다. 기업규모별 월평균임금을 비교하면 종업원수가 큰 기업일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반대로 적은 기업일수록 임금수준이 낮다는것을 알수 있다. 특히 5 명미만 기업인 경우 111 만 5 천 700 원으로서 300 명이상 기업의 324 만 5 천원의 34.38%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특기할것은 앞에서 본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대다수가 종업원수 30 명미만의 중소 및 영세기업에 종사하고있다는 사실이다.

표 3 기업규모별 월평균임금수준(2010.3 현재)

기업	월평균임금(단위:천원)	비중(B/A)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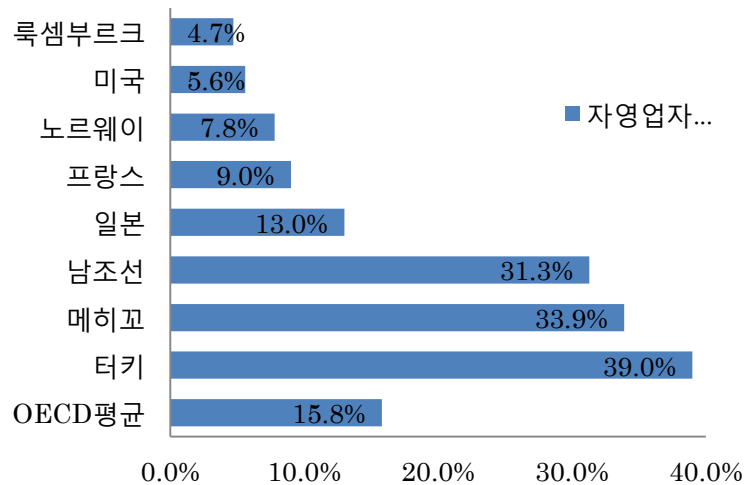
A	300 명이상	3245	100.00%
B	10 명이상 30 명미만	1858	57.26%
	5 명이상 10 명미만	1506	46.41%
	5 명미만 기업	1115.7	34.38%

자료: 김수현 『소득양극화의 개념 및 양극화실태』 새사연 2010.11 부터 작성

소득양극화의 원인은 둘째로,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들의 사업소득에서 격차가 확대되어있는데 있다. 남조선에서는 IMF 관리하에 진행된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들이 살길을 찾아 대량적으로 자영업에 진출하였다. 2009 년 현재 남조선의 자영업자비중은 31.3%로서 OECD 회원국속에서는 터키, 멕시코 다음에 비중이 높다. (도표 6 참조) 경제위기이후 남조선에서는 《오륙도》, 《사오정》¹¹과 같은 대중용어에 상징되는 근로자들의 조기퇴직의 일상화, 청년실업의 증대와 같은 고용불안이 자영업의 과잉창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50 만명이 창업하는데 과잉창업에 의하여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매상부진에 허덕이는 결과 80%이상이 폐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은 정규직근로자들보다 못하는것이 실정이다.

도표 6 국가별 자영업자비중(OECD 2010 년 통계년보)

¹¹ 《오륙도》는 “56 살까지 직장에서 일하면 도적놈”, 《사오정》은 “45 살이 되면 정년퇴직”을 의미하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상징하는 대중용어.



자료: 《한국 자영업자 비중 美의 5.6 배》『매일경제』 2010.12.10 부터 작성

이상에서 본바 같이 현재 심화되어있는 소득양극화의 직접적원인은 1997 년의 경제위기이후 임금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비임금노동자)들의 사업소득에서 격차가 확대되어 소득하위계층이 증대하고있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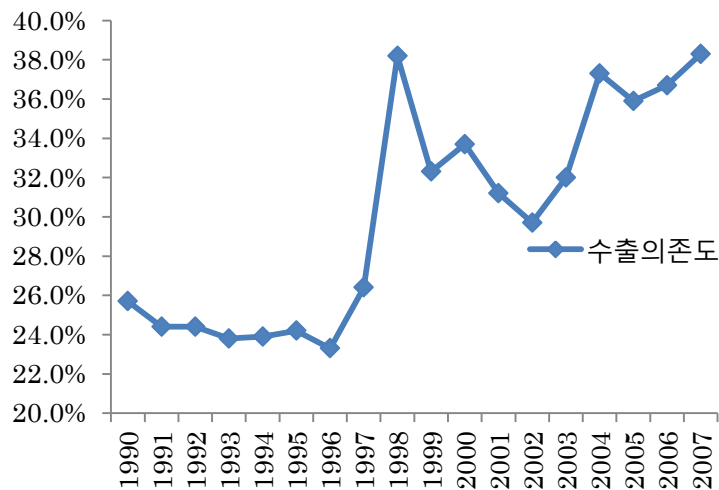
4. 맺음을 대신하여

남조선에서는 박정희정권이후 《수출주도형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수출증대→투자·고용의 증대→소비증대》란 순환구조에 집착해왔으나 1997 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결과 이 순환구조가 제대로 작동안하게 되었다¹². 남조선의 수출의존도¹³(도표 7 참조)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있는 한편

¹² 수출증대가 투자 및 고용의 증대를 야기하지 않게 이유는 첫째로, 경제위기이후 영미식의 주주자본주의가 도입됨으로써 기업들이 내부류보를 늘이거나 주주들의 배당요구에 응하기 위한 단기리익을 얻

수출과 성장과의 상관관계(도표 8 참조)는 위기이전에는 아주 밀접하고 강했으나 위기후부터는 미약하게 되어있다. 말하자면 남조선경제구조의 성격은 위기이전까지는 수출중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주도형》이란 성격이 강했으나 위기이후에는 수출에 의거하여야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성격,《수출의존형》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있는 셈이다. 지난 시기까지 남조선경제는 《수출의존》과 《수출주도》가 거의 동의어로 쓰이였으나 이제는 《수출의존》이자 곧 《수출주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성격변화의 후과가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분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소득량극화를 야기하고있다는 점에 있다.

도표 7 수출의존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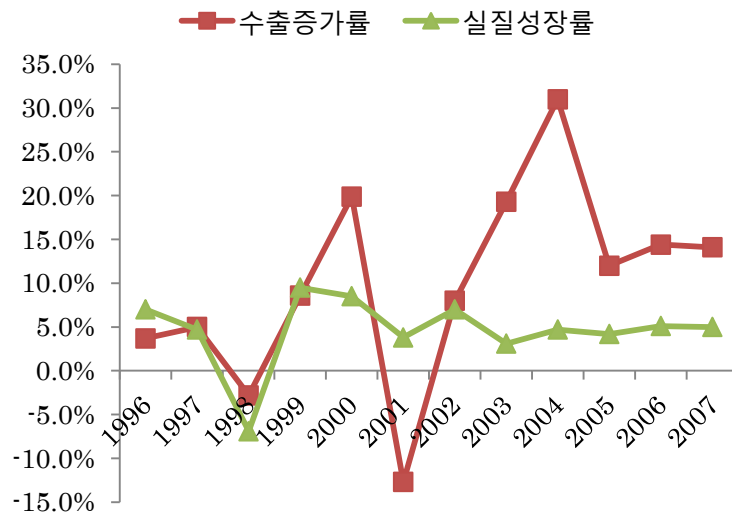


자료: 裴光雄 『1990年代以降の韓国貿易構造の変化と特徴』 부터 작성

어내는데 혈안이되어 장기리익을 위한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것 둘째로,은행들이 《관계지향형금융》으로부터 《시장지향형금융》으로 전환된 결과 수익성과 건전성의 제고를 강조하면서 기업대출을 축소함으로써 간접금융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성장이 저해된것 등을 올릴수 있다.

¹³ GDP 에 차지하는 수출액의 비중(수출액/GDP)

도표 8 수출증가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추이



자료: 裴光雄 『1990 年代以降の韓国貿易構造の変化と特徴』 부터 작성

남조선에서의 소득량극화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영미식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한 후
과로 말미암아 부각된 사회경제적문제이다. 소득량극화현상은 본질에 있어서 자본
축적의 일반적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다름아니기
때문에 그 근본원인은 자본주의기본모순에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취해지
는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재분배는 소득량극화를 완화할수는 있어도 그를 근절못한
다는 점을 본질적으로 파악해야 할것이다.